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감리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성령충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오늘, 성령강림주일

주님의 교회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고행

자기의 죄를 속죄 받기 위한 고행은 어떠한 것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회개를 고행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다. 고행은 자신의 고난으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말한다. 즉, 자신의 정당성, 의로움,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고행의 목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멸시하는 행위이다(로 3:23). 회개는 고행이 아니다. 혹독한 고행을 겪었음직라도 진정한 회개 없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요 15:5; 엡 3:17~19). 왜냐하면 우리 내면은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자존심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는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소망의 근거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소망하여 주시길까지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이다. 진정한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이다(엡 1:18).

'생명 얻는 회개'는 고행의 길로부터 순수하게 돌아서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를 회개해야 한다(렐 17:9). 우리는 자주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지 모를까" 내 죄 때문에 얼마나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우는지 당시는 모를 거야"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이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독립적인 삶으로 영위하기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다. 이 독립적인 삶을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교만한 기도이다. 이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시는, 항상 흐르는 생명수를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도움을 간구할 때까지도 자신의 온갖 것으로 열정을 다하여 자기의 노력으로 힘써 일해야 한다.

고행은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된 자의적인 숭배에 자신을 주게 될 것이다(골 2:20~23). 종교적인 예식에 자주 참석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육신까지도 재물로 매릴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은 물론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한 가지 목적은 자신의 죄책감, 죄로 상한 심령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특히 신비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양철학(선, Zen)에 빠지기 쉽다. 이는 자기를 낮추며 겸손으로 육신을 엄하게 쳐서 수련시키는 것이 기본 사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당성, 허식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자기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편임을 알기 때문이다(로 8:26). 이제 자신의 죄로 가득한 행함으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다(골 3:1~4). 이것이 회개의 핵심이다(고전 2:2,5).

이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옮겨 이스라엘의 부패함과 나라의 부흥을 걱정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드렸었다. 그의 마음이 광박하여 굳어져 있었고 믿음이 없었음 뿐만 아니라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렸다(로 1:21~23, 3:23). 그러나 자신의 죄를 알게 됨으로 그의 가슴이 찢어질 때 그는 자신은 "죽게 되었다."고 소리쳤다(사 6:5). 그의 눈은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보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죽게 되었다. 이로써 이사는 죽어야 하는 회개의 책임을 알았다. 하나님을 아는 자식이 자신을 새롭게 발전하게 만든 것이다. 반면에 고행은 인간이 보는 것과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교만한, 이 엄청난 자존심이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느끼는 자기연민으로 이르고 가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나간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논쟁을 멈추자. 오직 복음에 순종하여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자(로 3:24~28). 아멘.

2009년을 시작한 지 열네개 같은 데 벌써 그 절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2009년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에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과 한뜻으로 순종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일과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끈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굳게 붙들고 보혜사 성령님(요 14:26)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한 먼지가 시계를 고장나게 하고, 모래 한 알이 우리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죄악의 알갱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복음보다 세상을 더 선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졸거나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식시오. 오 성령충만함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2009년 제2차 청지기훈련

주제 : 특별 기도 (누가복음 6:12)

일시 : 6월 19일 금요찬양집회 시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6월 교회 일정

7월(주일) 여름계절학교 교사강습회(12:10) 제8차 CMTC1(찬양대배 후)

10일(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14일(주일) 제8차 CMTC2(찬양대배 후)

19일(금) 2009년 제2차 청지기훈련(금요찬양집회 시)

24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수요1부예배 후, 여전도회)

27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14:00, 남전도회)

28일(주일) 제3차 학습 및 세례식

Sermon for Next Sunday

YOUR BODY

(19) Or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from God, and that you are not your own?

(20) For you have been bought with a price: therefore glorify God in your body.
(1Corinthians 6:19~20)

People invest a lot of time, money, and concern in cleaning, improving, and maintaining their bodies. They bathe and brush their teeth regularly; some even take two showers a day. They develop their minds through various instruction; some even study the Bible. Exercise and healthy eating are big items on the to-do list because most folks want to look and feel good. People frequently cut their hair and nails, and shop for clothes. When some part of their bodies doesn't work quite right, they try real hard to fix it. Everyone has concern over their bodies, but did you know that Christians have another dimension in caring for their bodies?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The day you accepted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something miraculous happened to your body! Before you became a Christian, your body was built on tradition, intellectualism, and humanism. Your consciousness centered on earthly things. The minute you became a child of God, the Holy Spirit came inside your body. Paul says in verse 19, "Or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from God, and that you are not your own?" Do you really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lives inside your body? Does knowing that your body is no longer your own make you happy or sad? Too many of today's professing Christians walk around this earth proclaiming how great they are by constantly referencing "I". They think their bodies are their own. The Bible clearly says that your body is not your own. Do you agree or disagree? Think about this seriously. Do you really believe that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and that its purpose is to give you life? If yes, then you should agree, obey, and be really happy. 2Corinthians 5:16~18 says, "Therefore from now on we recognize no one according to the flesh; even though we have known Christ according to the flesh, yet now we know Him in this way no longer.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Now all these things are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Christians don't distinguish people by the way they look. God makes Christians better people through Jesus Christ. He changes their very nature and makes them a new kind of human being. A true Christian is careful where their bodies go and what their bodies do. A true Christian is conscientious about what their bodies ponder and how they react. My dear friend, please wake-up and realize that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lives within His temple. Who is in control? Is it your own visions and desires? Galatians 5:17~18 says, "For the flesh sets its desi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in opposition to one another, so that you may not do the things that you please. But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you are not under the Law." Christians live and walk by the Spirit. They are not boastful and they do not challenge or envy one another because they understand that the Spirit is in charge. The struggles that take place in your heart are flesh against Spirit. Many of today's churches advocate certain laws about what their members can and cannot do. Christians are not under the Law,

they do whatever the Holy Spirit does and they go wherever the Holy Spirit leads. Galatians 3:5 reminds us, "So then, does He who provides you with the Spirit and works miracles among you, do it by the works of the Law, or by hearing with faith?" In other words, the Christian life is a life of faith. New creatures live by faith. Jesus Christ promised that the Holy Spirit would come to you and teach you everything, so that all you need to do is follow. He said,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said to you" (Jn. 14:26). People always want what they think, bu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a believer makes it possible for them to want what God thinks. My dear friend, please pray and ask the Holy Spirit to give you wisdom and power. He is always available because He lives in you. Please practice your faith and let your words, actions, and thoughts be of the Holy Spirit. Start looking at His viewpoint, not your own.

The purpose of the Holy Spirit is to glorify God in His temple. Today's Bible verse says, "For you have been bought with a price; therefore glorify God in your body" (1Cor. 6:20). God created you for His glory. The purpose of your life is to glorify God. Look at how Stephen left this earth, "But being full of the Holy Spirit, he gazed intently into heaven and saw the glory of God, and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he said, 'Behold, I see the heavens opened up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But they cried out with a loud voice, and covered their ears and rushed at him with one impulse. When they had driven him out of the city, they began stoning him; and the witnesses laid aside their robes at the feet of a young man named Saul. They went on stoning Stephen as he called on the Lord and said,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Then falling on his knees, 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Having said this, he fell asleep" (Acts 7:55~60). Stephen glorified God in giving his life. Even though he was dying, he still glorified God. When people suffer personal harm, they usually run or try to hurt their attacker, but Stephen was different because the Holy Spirit was in him. Paul glorified God in his beatings and stoning, just as John the Baptist suffered as a prisoner unto death. My dear friend, God can receive and give glory through your body with the Holy Spirit. Please surrender your body to the Lord and glorify God in every moment of your daily life. Paul confessed, "From now on let no one cause trouble for me, for I bear on my body the brand-marks of Jesus" (Gal. 6:17).

Who is in your body? Who is controlling your life? Are you glorifying God's name, or your own name? Is your pride or the Holy Spirit leading you? Please appreciate your new life in Jesus Christ and the wonderful gift of God's Holy Spirit. Let His residence and eternal seal nourish your soul. Let your baptism and conversion grow the Spirit'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in you. Now is the time to live by the Holy Spirit, so that through Him you glorify God in the highest and have victory. Please have your attitude toward your body reflect the Holy Spirit's indwelling. Amen. 

다름 주일 설교

너희 몸은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19~20)



김성완 목사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씻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과 물질, 관심을 쏟아 붓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목욕을 하고 이슬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두 번씩 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강박을 통해 정신적인 면도 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운동과 건강식은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최대 아이탬입니다. 멋지게 보이고 싶고 기분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머리와 손톱을 손질하고 옷을 고르려 옷가게에 갑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갖은 애를 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의 전이라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그 날, 불가사의한 일이 여러분의 몸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여러분의 몸은 전통과 지성, 인본주의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세상적인 것에 몰려 있었습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아니면 도리어 슬프게 합니까?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과시하며 돌아다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며 정말로 기뻐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16~18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나와 비록 누구든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고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 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본성을 바꾸시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이 무엇에 골몰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정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깨달으십시오.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은 그의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여러분 자신의 비전이나 욕망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17~18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 살고 성령에 의해 견디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으며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 원인인

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일정한 규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5은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나."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을 원하도록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께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실천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이 성령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관점이 아닌, 성령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성령의 목적은 그분의 성령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을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동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중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니라"(행 7:55-60).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해를 당하면 보통 달아나거나 맞서서 싸우기 마련인데 스데반은 달았습니까. 그의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을 때가 지 감옥에서 고상했던 것처럼 바울은 매를 맞고 돌에 맞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봉헌시키고 일상생활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도라"(갈 6:17).

누가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성령을 받은 것은 감사하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과 영원한 인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가길 원합니다. 세례와 회심을 통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려고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

마가복음 강해 78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13:28~37)

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울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막 13:28~29). 마지막 때에 온갖 거짓이 난무하며 참 신자들은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거짓에 미혹당하거나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약 5:8~9).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때에 관해 자신이 말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며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막 9:1, 13:30).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특히 말세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말씀(벧후 3:7~10)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아직 말세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말자.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막 13:10). 특히 말세에 일어날 회한한 징조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의 가치와 학문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답송권을 가져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믿는 승객처럼 눈에 보이고 이해되는

것만을 믿겠다는 사람은 결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지금 당장 인간의 학문으로 검증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천지는 없어 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막 13:31).

그 날과 그 때를 아는 피조물은 절대로 없다(막 13:32).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의하여 깨어 있는 것이다(막 13:33).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마 5:44~45, 48; 눅 6:35~36).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마 11:27).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눅 10:22; 막 14:36). 절대로 잠들면 안 된다(막 13:34~35).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막 13:36).

우리는 재림의 임박함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우리의 삶에 유익한 일부 말씀만을 이용하려는 죄성 때문이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들었던 사백 명의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일백이십 명뿐이었다(행 1:15).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가? 세상의 문화와 학문, 이성과 논리에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으로는 창조와 은총의 섭리를 절대로 알 수 없다. 말세와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분명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막 13:37). 아멘.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계획하심

나에게 선교교, 내 맘 한 편에 나 자신도 찾지 못하는 수줍은 곳에 숨어있는 단어였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선교교로 보내주셨다. 왜 주님은 한없이 나와 하고 부족한 나를 택하여 보내셨는지 처음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주님은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나를 더욱 주님 안에서 강하고 강건하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셨고, 내가 그 곳에 가야만 하는지를 일깨워 주셨다.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창년1부 팀을 만드셨다. 주님은 그렇게 다 계획하고 이루셨다. 선교교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뿌리깊음도 있었고 준비했던 것처럼 쉽지만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담하게 거침없이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특히 비록 보이는 내 몸이 그들보다 깨끗해 보이지만 내 마음의 더러움과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을 부정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은 이런 내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어쨌든 내 입에서 나오는 선교언어들을 그들이 조금씩 알아듣게 해 주셨다. 어린이들이 모든 선교언어들을 한 단어씩 따라 말하고 찬양과 율동을 따라하던 중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느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내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넘쳤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오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주님 계획하심대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주소서.”

한 어린 아이가 기억난다.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할머니가 전도지를 빼앗아고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자 아이의 몸짓과 눈에서 역지로 들어가야만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아이가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여서 철문사이에 꽂아둔 전도지를 가져가라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몰래 전도지를 가지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주님, 우리는 이곳에서의 사역이 끝나면 다른 땅으로 이동하지만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로 다시 불러오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난 괜한 조급한 마음과 앞만 믿음을 보았다.

8박 9일의 선교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밤 서로가 느끼고 깨달은 점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느끼며 정말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주님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또 다른 주님의 땅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 인생에 가장 인생 값었던 8박 9일, 그리고 내게 보인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계획하심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

(백재욱(청년1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일(화) ~ 6월 10일(수)	1교구 1팀	구원섭
6월 3일(수) ~ 6월 12일(목)	3교구 1팀	김 광
6월 4일(목) ~ 6월 11일(목)	5교구 1팀	이창태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5일(월) ~ 6월 2일(화)	24교구 1팀	이민숙
5월 25일(월) ~ 6월 3일(수)	19교구 1팀	최진성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중학교 입학식 날, 강당 중앙에 걸려있는 초상화 속의 한 외국인을 바라보며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렇게 사진 속의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또한 나누어준 악보가 학교 교가인 줄 알고 열심히 합창 연습을 하였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못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 노래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였던 것이다. 이렇게 입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얘야, 네 몸은 비록 하나님께 가지지만 마음만은 부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 누가 알겠나?'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몰랐던 내게 다가오고 계셨다. 채플 시간의 짧은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고3이 되어 수험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은 점점 잊혀졌다.

이처럼 타자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아내를 통해 천령교회로 인도하셨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점차 알아가게 되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랜 불교신자였던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나를 실마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깨달았다.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이다. 이제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며 주님만을 좇아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다짐해 본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들었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백남제(집사, 7교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가는 믿음

성경을 암송하도록 권유받고 나서 '과연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실수 없이 암송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사무실 업무뿐 아니라 일상적인 일조차 손에 잡히지 않았다. 청소년 시절 학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다. 알기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소년 시절은 나에게 이미 오욕십 년 전의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망설이다간 시간만 흘러갈 뿐 될 일이 아니었다. 시간은 이미 하루가 지났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고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성경을 대화하는 마음의 자세로 암기하기 시작하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워지기 시작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짧은 시간에 성경을 암송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뿐이다. 하려고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달란트를 틀림없이 주시는 분이랴 믿는다. 말씀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나서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속으로 조용히 반복해서 암송을 하며 다니다 보니 시간이 빨리 흘러가 피곤한 줄 모르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는다. 길을 다니다 보면 피곤하고 지루하고 답답하며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온전히 소망할 뿐이다. 아멘.

나성현(집사, 19교구)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앞으로 투병하시던 시댁의 형님이 주님의 품으로 가신 지 꼭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내가 만나 결혼한 신랑의 시댁은 신랑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었다. 식구 중 몇몇은 어렸을 때 가문 교회 문턱을 지나다녔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그런 나에게 시댁의 생활용품은 너무나 많은 기도제목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던 시댁 식구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생겼다. 큰동서가 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처음 수술을 하여 치료가 되는 듯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은 재발하여 온 집안에 어둠의 그늘이 드리웠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큰동서와 가족들은 오로지 세상적인 치료에만 매달렸다.

그 후 주님께서는 나와 신랑을 통해 큰동서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고 그렇게 큰동서와 가족들은 주님의 인도로 천령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새가족부를 마치며 큰동서와 시아주버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 정말 기쁘다고 하셨을 때, 내 마음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밀려왔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마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을 향한 큰동서 부부의 믿음은 날로 자랐다. 하지만 큰동서의 암은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주님, 제발 큰동서의 암을 고쳐 주세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고쳐 주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나와 신랑은 주님 앞에 열흘 동안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도무지 응답이 없으셨다. 교구에서도 심방과 중보기도를 하여 주시던 지난해 4월 하순, 금요찬양집회를 마친 늦은 밤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기도 속에 큰동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가셨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시댁의 온 가족이 큰 슬픔에 잠겨 눈물을 앞을 가릴 때 시댁 식구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보고 시부모님께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었다. 수십 년 동안 제사상을 차리시던 두 분의 입에서 "이제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말씀이 나오게 하였고, 교회에 전혀 나가지 않던 두 분이 큰동서가 주님의 품으로 간 지 1년이 지난 지금,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작은동서 가족은 천령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큰 동서는 주님 품으로 먼저 보낸 시아주버님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또한 더욱 강하게 자라 지금은 더욱 순종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신다. 큰동서를 먼저 떠나 보낸 지 1년이 지난 지금, 슬픔을 이기고 그 속에서 시댁의 온 식구들에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린다.

전지희(집사, 21교구)



오순절 성령강림

성령으로 살면(갈라디아서 5:25~26)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갈 5:24~25).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려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않는다(갈 5:26). 대신에 질서와 조화가 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사는 참 신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있다.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우리는 신령한 예배와 경배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요 4:23~24).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자를 찾으신다. 바로 성령의 사람을 찾으신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계 1:10.11). 세상으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늘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성령의 사람 사도 요한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풍경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모습을 보았다(계 4:1.2). 이 놀라운 하늘과 미래의 일을 바울도 보았다. 당시의 바울은 돌에 눈 몸을 맞아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점차 그는 고통이 아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말했던 것이다(고후 12:2~4). 엠바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만난 뒤 성령의 사람이 되어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서 놀라운 일을 전하였다(눅 24:35). 성령의 사람만이 하늘과 미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겔 37:3.4.9.10).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도적질한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다. 십자가에만 집중하자(행 20:23.24).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환난 중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신다(사 46:1~3).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성령님이 거하심을 간증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심을 간증한다. 따라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롬 8:9). 성령만이 죄로 물들어 소망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이 거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난다(고전 3:16~17).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행 6:3 ; 고전 2:4). 이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성령의 사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을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엡 6:18 ; 유 :20).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의 거하심을 간증할 수밖에 없다.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늘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이해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성령님의 거하심을 간증하게 된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자. 성령으로 살자!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수확 칼럼 ③ 사도 신경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신경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여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 예수님은 인류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행 4:12).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다. 만 여인(마 1:16)의 아기로 예수님은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났었다.

1.이는



2. 성령으로



3.잉태하사



4.동정녀

5.마리아



6.예

7.나시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다(눅 22:12~13). 특히 오순절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던 곳이고 신약 시대의 최초의 교회화 되었다. 예루살렘성에는 동문, 서문, 남문, 미문 등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사문 문으로 빠져나와 100미터쯤 시온산 언덕에 2층 석조 건물의 돌계단을 올라가면 약 70~80평 정도 되는 곳이었다. 마가는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게 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과 함께 모여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던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리스도인을 향한 당시 험악한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내어준 마가의 행동은 담대한 믿음의 결정이었다. 마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핍박이나 심지어 죽음도 각오했던 것이다. 마가는 특히 외삼촌인 바나바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고 신앙이 성숙해졌으며, 사도 베드로를 따르며 복음을 전했다(행 5:13). 나중에 외삼촌인 바나바를 따라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활동에 힘썼다(행 12:25).



새가족양육부 5월 수료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족 모두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성령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도제목입니다. (여양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족 모두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수진)

양육기간을 통해 제 자신을 낫추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제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기를 원합니다. (김소진)

전에 다른 교회에 다녔는데 찬양하는 방법도, 기도하는 대상도, 한 마디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늘 감사합니다. 이 앞으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전도하는 주의 정치기가 되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하순임)



첫지기칼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어찌 감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까! 만 가지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두 세계를 살면서 마음으로는 천국을 소망하며, 또 육신으로는 세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부끄러운 죄의 모습밖에는 볼 것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발성 난청과 대상포진, 어지럼증과 같이 원인이 모르는 질병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지나간 날들의 삶이 떠오르면서 눈물과 회개의 기도가 쏟아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내어주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없으면 안 끝없는 절을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임을 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이제는 저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다 붙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제 마음 중심에 좌경하시어 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십시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매순간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감람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맡겨 주신 귀한 모든 사랑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세준 (권사, 13교구)

성경속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어느 곳을 보아도 주님(Lord)이 보이네
그는 성경의 주제이며 그 책(The Book)의 중심이며, 심장일체 그는 사탄의 장미요, 그는 아름다운 백합이니
성경의 어느 곳을 열든지
그 책(The Book)의 주님이 거기 계시네
그는 그 책(The Book)의 첫머리에서 땅에 형체를 부여하였고
그는 안식의 방주로서 폭풍의 예봉을 이겨내며
사막의 불타는 떨기나무요 아론의 지팡이의 썩이니
성경의 아들을 보든지
아남님의 아들(the Son of God)이 보이네

모세가 두드린 반석,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진 목자
그 책(The Book)의 아들을 열든지
나의 주님의 얼굴이 보이네
그는 여인의 후손이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구세주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들의 냉소의 백정을 받으셨네
그의 온애와 아름다움의 거울을 당당한 아론이 입었네
하지만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
이는 그 맏계제막일세

영원한 영광의 주님, 요한과 사도가 본 그 분일세
황금도시의 빛, 흠과 타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한밤중에 오시는 신랑, 처녀들이 그를 기다리다네
성경 아들을 열든지 거기에 나의 주님이 보이네

모리아산의 수양, 땅에서 하늘로 이르는 사다리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 그리고 높이 들린 눈썹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인도자
820	유순석	9	청년1부	한금지(9)
822	윤선미	4	청년1부	한금지(9)
823	정지호	10	대학부	장나혜(10)
824	김재웅	2	대학부	홍준(2)
825	안영기	21	청년1부	김보혜(3)
826	정승희	10	청년1부	이혜경(9)
827	류기린	15	청년3부	백경숙(24)
828	김건민	24	청년1부	김영현(18)
829	김수숙	4	청년3부	안정숙(4)
830	조 호	17	청년1부	윤희순(10)
831	박소혜	22	대학부	김성배(22)
832	신윤자	7	청년2부	인분조(2)
833	송준호	12	청년2부	홍준(2)
834	황선진	12	청년1부	한박주(9)
835	강지영	15	청년1부	유종석(1)
836	김리나	9	청년1부	김영민(15)
837	조지순	17	청년2부	김두순(4)
838	김수우	2	청년2부	남계순(24)
839	정영정	10	청년1부	장지진(10)
840	최은아	4	청년2부	
841	서 은	4	청년2부	
842	정요진	17	대학부	이지혜(17)
843	최수정	12	대학부	안화준(2)
844	변승준	2	청년3부	
845	박미경	11	청년2부	김현보(10)
846	김윤선	25	사랑부	김영미(18)
847	송준호	12	청년1부	정영정(2)
848	황지영	15	청년1부	정영정(2)
849	강지숙	26	소망부	임영미(16)
850	이승현	14	대학부	임진애(14)
851	원지현	5	청년1부	조국환(1)
852	정유나	1	청년1부	신은숙(1)
853	오정민	11	청년2부	강복희(13)
854	김동철	17	청년1부	김성수(22)
855	김지현	2	청년2부	
856	최재훈	22	청년2부	정인성(22)
857	이영준	13	대학부	송수현(18)
858	최지영	4	청년1부	최홍길(6)
859	유한진	5	청년1부	이옥기(20)
860	박승배	5	고등부	홍금진(5)
861	신영주	4	고등부	안영미(14)
862	한재호	2	청년2부	한광우(23)
863	오경화	9	청년2부	유은영(9)
864	김영화	2	청년4부	최상조(8)
865	박금진	2	청년4부	최상조(8)
866	김성훈	14	청년1부	조종욱(14)
867	양영미	1	청년1부	이은숙(2)
868	재영호	21	청년1부	강진규(8)
869	박유진	23	청년1부	정종현(23)
870	송민정	8	청년1부	
871	김지민	20	유년부	정정경(20)
872	김지혜	1	청년2부	이종영(8)
873	김영자	14	청년1부	임영민(14)
874	윤병준	7	청년1부	이미주(14)
875	최민정	1	청년1부	김민수(23)
876	박재호	15	대학부	이상훈(5)
877	차광호	6	청년3부	최영자(6)
878	김영주	6	청년3부	김현희(6)
879	박은미	22	대학부	한은영(22)
880	정진아	4	대학부	이지영(5)
881	백현진	10	대학부	백민진(13)

* 후원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부에 오시기 바랍니다.

